

韓國音樂論集

中央音乐学院图书馆藏书

号	F1.2.2/
总	7CE6 31
登	
号	153491

李惠求 著



世光音樂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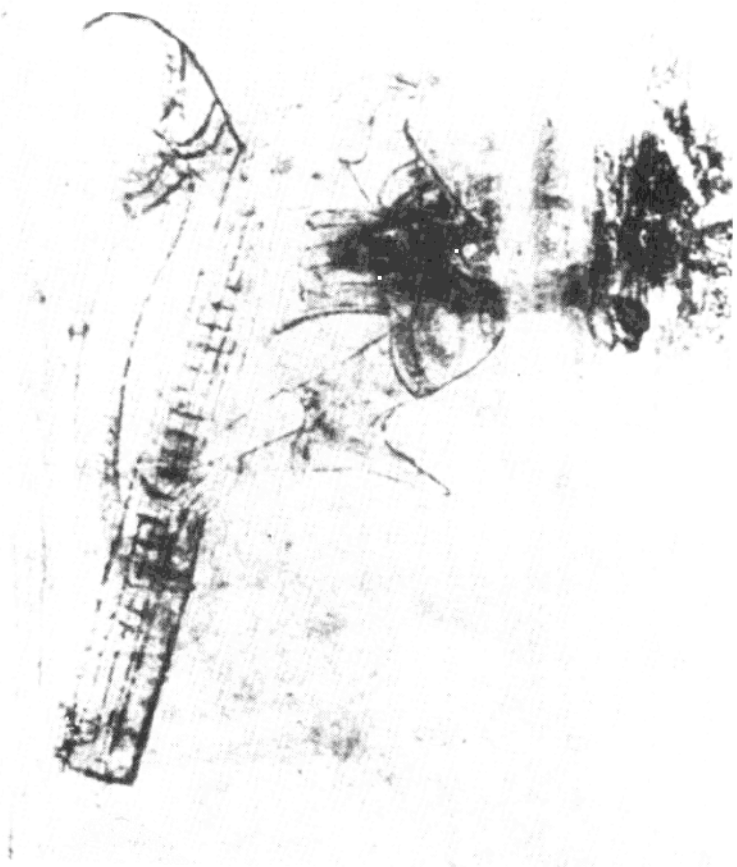
PDG

HKPS8

韓國音樂論集

李惠求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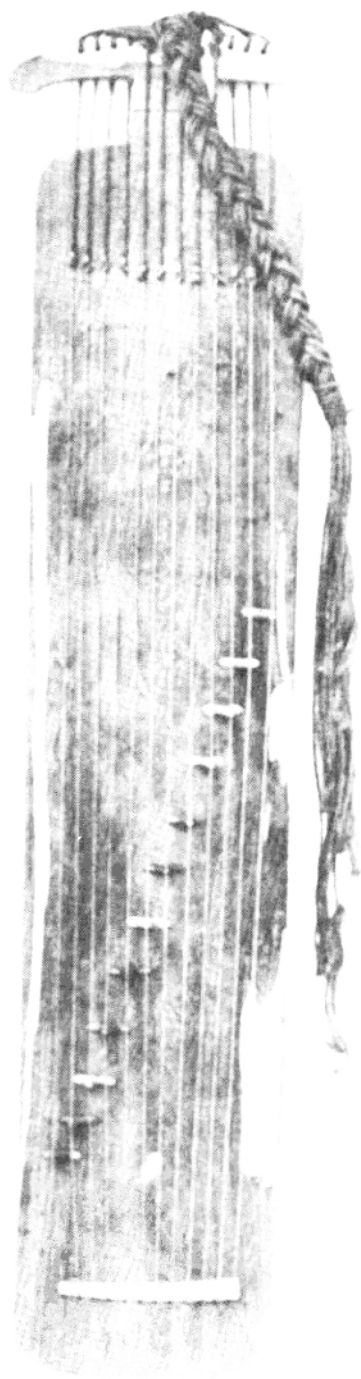
世光音樂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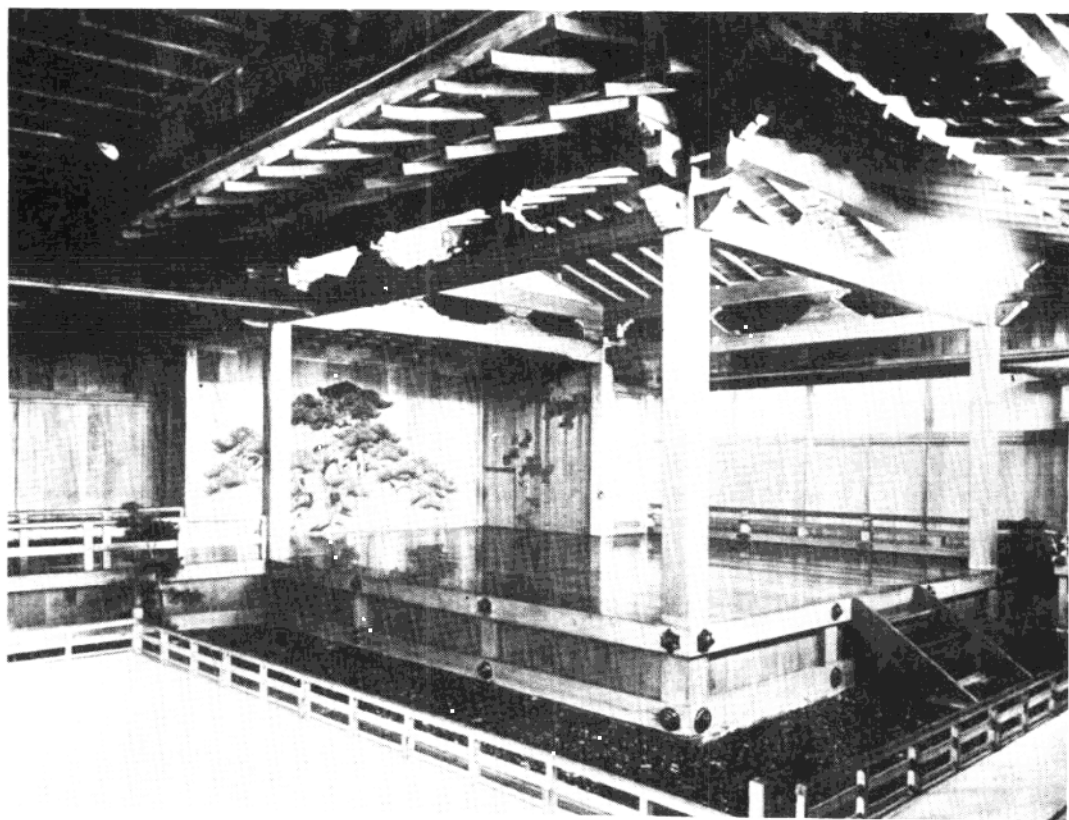
原거문고：舞踊塚 主室 左壁天井「通壽」卷下 圖版第三七



篳篥：上院寺 銅鐘



新羅琴：日本 正倉院藏



能舞臺：Kishibe Shigeo; The Traditional Music of Japan 에서
(音樂之友社)



金銅透雕蓮花轉天蓋：德盛寺遺址，現藏北京國立博物館所藏（德盛寺遺址提供）



題字——中金忠顯

自序

韓國音樂論集은 나의 六十五歲 停年退職을 紀念한 韓國音樂論叢 出版 後 近十二年間 여러 學術誌에 寄稿한 論文, 또는 그와 비슷한 글을 모아 한 卷에 엮은 冊이다. 同 期間에 쓴 雜文을 모아 놓은 冊은 이와는 따로 晩堂續文債錄(1985年 3月)이다. 이 論集이 版權問題를 考慮에 넣어, 나의 論文 一篇 “Triple Meter and It's Prevalence in Korean Music”, Music, East and West in Honor of Walter Kaufmann, New York: Pendragon Press, 1981을 收錄하지 못한 것이 遺憾이다.

大體로 이 論集이 이미 發表된 論文들을 轉載한 것이지만, 그 中 〈韓國音樂의 構造의 特徵〉은 論旨에 더 適切하게 樂譜를 새것으로 바꾸어 썼고, 〈靈山會上〉은 三絃도드리·下絃·念佛·打鈸의 分析이 文獻의 뒷받침을 받게 하기 위하여 改訂되었고, 〈井邑과 動動〉은 좀 더 알기 쉽게 樂譜의 例證을 添加하였다. 이같은 補完改編을 위하여 順序를 찾기 어려운 지경으로 四方에 亂雜하게 고쳐 쓴 것을 正確하게 淨書하는 勞苦와 또 校正段階에서 組版한 것을 뜯어고치는 번거로움을 기꺼이 負擔하여 준 世光音樂出版社의 朴宰完(本名; 湘珍)君에게 感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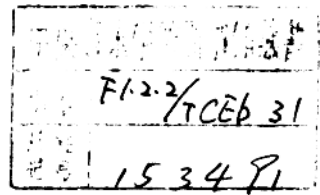
끝으로 나의 七十七歲 喜壽의 紀念이 될 이 韓國音樂論集 出版을 受諾한 世光音樂出版社 朴信堧 會長에 深甚한 謝意를 表한다.

1985年 10月 5日

著者識

.





目 次

1. 韓國音樂의 構造的 特徵	11
2. 韓琴新譜의 羽調數大葉	35
3. 嶽山會上	67
4. 箏歌寥亮	157
5. 現行的 動動과 井邑	173
6. 世宗朝 音樂文化的 現代史的 再認識	195
7. 日本에 있어서의 三國樂	217
8. 獨立運動과 民族音樂	229
9. 楊州山臺假面劇에서의 登場과 退場의 形式	267
10. 越殿樂의 拍子數とその反復方法	295
11. The Ultimate Aim of Musicology and Ethnomusicology	309
12. Ethnomusicology in Korea	315
13. Introduction to Koran Music	323
14. Difference between <i>Hyang-ak</i> and <i>Tang-ak</i>	339
15. Variations in the Korean Classical Lyric Song (<i>Ka'gok</i>)	349
16. Quintuple Meter in Korean Instrumental Music ¹	371
17. 색인 (Index)	381

韓國音樂의 構造的 特徵

1. 韓國音樂의 特徵 卽 鄉樂과 唐樂의 差異
2. 鄉樂 靑山別曲과 그 改變曲 納氏歌와 休命
3. 鄉樂 滿殿春과 그 改變曲 順應
4. 鄉樂 風入松과 그 改變曲 隆化
5. 鄉樂 雙花店과 그 改變曲 雙花曲과 新樂 貞明
6. 맺는말

韓國音樂의 構造的 特徵

1. 韓國音樂의 特徵 卽 鄉樂과 唐樂의 差異

廣義의 韓國音樂은 西洋音樂의 對稱으로 所謂 雅樂·唐樂·鄉樂을 모두 包含한다. 그 雅樂이란 現在 文廟祭享에 使用되는 中國 古代의 音樂으로 編鍾·編磬·祝·敔 等 中國雅樂에 特有한 樂器를 쓰며, 雅樂의 特色인 登歌·軒架의 區別을 갖고 있다. 다음에 韓國에서 唐樂이란 것은 文字 그대로 唐代의 音樂이 아니고, 高麗朝에 들어온 宋代의 詞樂으로, 例를 들면 洛陽春·步虛子(但, 大樂後譜 以後의 步虛子는 鄉樂化된 것) 等과 鼓吹樂 與民樂 等이다. 그 唐樂은 一名 左方樂이고, 宮中의 典禮나 宴會에 쓰인 것으로서, 方響·唐笛·唐羯鼓를 使用하는 것이 그 特徵의 하나이다. 끝으로 鄉樂은 唐樂 또는 左方樂의 對稱으로 右方樂이라고도 불리는데, 鄉樂 卽 右方樂은 唐樂 卽 左方樂과 함께 主로 宴會에 쓰이었고, 大琴·鄉羯鼓를 使用하는 것이 그 特徵의 하나이다. 韓國에서 唐樂이 左方樂이라고, 그리고 鄉樂이 右方樂이라고 불리듯이, 日本 雅樂에서의 唐樂도 左方樂이라고도 하며, 그 高麗樂이 右方樂이라고도 불리는 點에서 日本의 高麗樂은 韓國의 鄉樂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다. 狹義의 韓國音樂은 唐樂의 對稱인 그 鄉樂 一名 右方樂을 가리킨다.

韓國音樂의 特徵은 무엇인가? 鄉樂 또는 右方樂은 唐樂 또는 左方樂과 어떤 點에서 다른가? 그 兩者의 差異에 對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鄉樂과 唐樂이 比較될 것이다.

鄉樂과 唐樂의 比較가 合理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比較對象이 同一種類에 屬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鄉樂의 聲樂과 唐樂의 器樂같이 카테고리를 달리하는 對象은 그 比較를 困難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比較對象이 同一카테고리에 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同一時代에 屬하여야 그 比較가 穩當한 基盤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15世紀의 唐樂과 今日의 鄉樂의 比較는 不合理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比較對象이 同一카테고리와 同一時代에 屬하더라도 그 對象의 어떤 面이 比較對象으로 選擇되어야 할 것인가가 問題이다.

이 問題에 暗示를 던져 주는 것이 時調論評 中の 「有格無趣是土牛」와 「有人無我是傀儡」란 두 句라고 생각한다¹⁾. 前者는 有格 또는 格式만 있고 趣, 卽 趣向이 없는 音樂은 흙으로 빚은, 卽 生命 없는 소라는 뜻이고, 後者는 「我」, 卽 個性이 없는 「人」, 卽 「人間」은 傀儡에 지나지 않는

1) 李挺宙編 時調眞解中 時調論評 晚堂文僖錄 p. 428.
張師前著 時調音樂論 p. 162.

다는 뜻이다. 土牛나 傀儡나 다 같은 뜻을 說明한 위의 서로 비슷한 두 句를 對照 綜合하면, 위의 두 句는 한편 土牛 또는 傀儡같이 個性이 없는, 따라서 不變한 格과, 또 한편 個人에 따라 變하는 趣라는 音樂의 兩面을 보여 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個人에 따라 各各 다른 趣의 面 대신에 固定不變한 格의 面이 比較對象으로 選擇되어야 할 것이다. 換言하면, 사람에 따라 變하지 않는 그런 音樂의 格, 卽 構造的 面이 比較對象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比較가 安全하게 成立되려면 그 比較對象이 同一 카테고리와 同一 時代에 屬하여야 하기 때문에 韓國에 있어서의 鄉樂과 唐樂의 比較에 世宗 때의 新樂 定大業 中の 休命·順應과 그 原曲인 鄉樂 靑山別曲·滿殿春, 그리고 같은 新樂 保太平 中の 隆化·貞明과 그 原曲인 鄉樂 風入松·雙花店이 그 比較對象으로 選擇되었다.

世宗實錄에 依하여 新樂 定大業과 保太平이 發祥·鳳來儀와 함께, 鼓吹樂과 鄉樂에 基하여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²⁾, 그러나 그 新樂 定大業 15曲과 保太平 11曲 中 어느 것이 鼓吹樂에 因한 것이고, 또 어느 것이 鄉樂에 基한 것인지는 明示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後 文獻에 依하여 定大業 中の 順應은 鄉樂 滿殿春에서 나온 것이 指摘되었고³⁾, 定大業 中 休命이 鄉樂 靑山別曲에서⁴⁾, 保太平 中の 隆化가 鄉樂 風入松에서⁵⁾, 同 貞明이 鄉樂 雙花店에서⁶⁾ 나온 것이 筆者에 依하여 指摘되었기에, 그 新樂 四曲과 그 原曲인 鄉樂 四曲과의 關係에 對한 考證은 여기서 省略되었다.

다음에 鄉樂 靑山別曲·滿殿春·風入松·雙花店은 우리말 歌詞를 가졌고, 그 各 句의 첫머리에 拍을 받고 있는데(但, 雙花店에는 拍이 없고, 滿殿春과 風入松에서의 拍의 位置는 後에 言及 하겠다), 그 鄉樂에서 由來한 新樂인 休命·順應·隆化·貞明은 모두 新作의 純漢文歌詞를 가졌고, 各 句의 끝에 拍을 치게 되었다(樂譜 一, 二, 三, 四 參照).

拍은 元來 唐樂에 使用된 것인데, 唐樂에서는 句의 끝에 들어간다. 唐樂 洛陽春을 보아도 다음 같이 拍이 句의 끝(第4·8行)에 들어간다.

唐樂에서 拍이 句末에 들어간다는 事實은 洛陽春 以外에 唐樂系 步虛子·笙歌寥亮·與民樂⁷⁾ 等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2) 世宗實錄 卷 138, 1面, 世宗 因鼓吹樂及 鄉樂 創爲新樂 曰定大業 保太平 發祥 鳳來儀.

3) 成宗實錄 卷 215, 19年 4月條 但定大業 赫整調詞(世宗朝의 順應이 世祖朝에서 赫整으로 改稱) 似滿殿春

4) 休命과 靑山別曲의 比較(韓國音樂論叢 p. 55) 1972

5) 李惠求 舊韓樂의 創作活動(韓國音樂研究 p. 384) 1950
張節助 風入松(國樂論叢 p. 68) 1955

6) 세종장헌대왕실록 卷 22, 악보 1, p. 188(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발행)

7) 步虛子(大樂後譜 卷六)

笙歌寥亮(時用鄉樂譜 28장)

與民樂(世宗實錄 卷 140, 2面)

洛陽春

黃(紗)									
黃(窓)									
太(未)									
太(晚)					太				
拍									
黃(黃)									
太(鶯)					太			黃	
南(語)					黃				
黃									
拍									

(下略)

(俗樂源譜 卷之四에서)

이와 反對로 鄕樂에서는 唐의 樂器인 拍이 鄕樂 双花店에서처럼 안 쓰이거나, 또 쓰일 경우에는 句의 初頭에 나오거나 한다. 時用鄕樂譜의 26曲 中 唐樂系인 笙歌寥亮만 除外하고 鄕樂은 모두 句의 初頭에 拍을 친다(風入松과 夜深詞는 後에 論하섯음). 日本雅樂의 경우도 唐樂에서는 冒頭에 「百」(拍)이 놓이는 것은 거의 없으나, 日本말 歌詞를 가진 催馬樂(사이바라)에서는 그것이 많다⁸⁾.

따라서 新樂 休命·順應·隆化·貞明의 4曲은 그 歌詞가 純漢文으로 되었고, 拍이 句의 初頭에 들어가는 點에서 唐樂 그 自體는 아닐지라도 唐樂系임을 알 수 있고, 反對로 그 原曲인 靑山別曲·滿殿春·風入松·双花店이 鄕樂임은 勿論이다.

要컨대 新樂 休命·順應·隆化·貞明이 唐樂을 代表하고, 그 原曲인 靑山別曲·滿殿春·風

8) 唐樂では冒頭に「百」がおかれ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が、(日本語樂系の)催馬樂では空拍子をふくめて、これがもっとも多い。拍樂(高麗樂)にはこの二様が見られる。(林謙三 雅樂一、催馬樂における拍子と歌詞のリズムについて p.472)

入松·双花店이 鄉樂을 代表하므로, 이 新樂과 그 原曲이 그 構造面, 即 리듬과 樂節의 면에서 比較되어 唐樂과 鄉樂의 差異, 即 韓國音樂의 特徵이 찾아질 것이다.

끝으로 末尾의 樂譜 中 休命·順應·隆化·貞明의 것은 世宗實錄 卷138의 樂譜를 五線譜로 譯譜한 것이고, 青山別曲·滿殿春·風入松·双花店의 樂譜는 時用鄉樂譜(青山別曲·風入松·双花店)와 世宗實錄樂譜(卷146의 滿殿春)를 譯譜한 것이다.

2. 鄉樂 青山別曲과 그 改變曲 納氏歌와 休命

青山別曲은 高麗朝의 鄉樂이며, 納氏歌는 그 高麗朝 音樂에다 朝鮮朝에 鄭道傳이 새로 지은 五言의 漢詩에다 우리말 토를 단 歌詞⁹⁾를 붙인 것이며, 休命은 그 後 15世紀에 高麗朝의 鄉樂에다 四言의 純漢文의 歌詞를 붙인 新樂¹⁰⁾으로 定大業 中의 一曲이다.

(1) 우선 이 세 가지 音樂의 歌詞의 리듬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1 行	1 行	
①	(青山別曲) : <small>拍</small> 살 어 리 살 어 리 / <small>拍</small> 라 싸	<small>拍</small> <small>拍</small>	
	(納氏歌) : <small>拍</small> 納 氏 侍 雄 強 / <small>拍</small> 호 야	<small>拍</small> <small>拍</small>	
	(休命) : 我 旅 載 回 / 帝 命 是	<small>拍</small> <small>拍</small> <small>拍</small>	○
②	(青山別曲) : <small>拍</small> 青 山 의 살 어 리 / <small>拍</small> 라 싸	<small>拍</small> <small>拍</small>	
	(納氏歌) : 入 寇 東 方 北 / 하 더 니	<small>拍</small> <small>拍</small>	
	(休命) : 誰 其 倡 義 / 神 斷 獨	<small>拍</small> <small>拍</small> <small>拍</small>	○
③	(青山別曲) : <small>拍</small> 멸 위 랑 득 래 랑 / <small>拍</small> 타 먹 고	<small>拍</small> <small>拍</small>	
	(納氏歌) : 縱 傲 誇 以 力 / 호 니	<small>拍</small> <small>拍</small>	
	(休命) : 路 載 懽 登 / 三 軍 陶	<small>拍</small> <small>拍</small> <small>拍</small>	△
④	(青山別曲) : <small>拍</small> 青 山 의 살 어 리 닳 다 / <small>拍</small> 알 리 알 리	<small>拍</small> <small>拍</small> <small>拍</small>	
	(納氏歌) : 鋒 銳 라 不 可 當 이 /	<small>拍</small> <small>拍</small> <small>拍</small>	
	(休命) : 既 警 既 戒 / 沿 道 搏 獸	<small>拍</small> <small>拍</small> <small>拍</small> <small>拍</small> <small>拍</small> <small>拍</small>	○
	孰 犯 秋 毫	<small>拍</small> <small>拍</small> <small>拍</small>	